

경남도, 노후·위험시설 1800개소 집중 안전점검 실시

오는 6월 21일까지 61일간 실시 키즈카페, 워터파크도 전수점검 특별교부세 신청 등 적극 후속조치

경남도는 도내 노후·위험시설 1800개소를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분야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의 하나로, 지난 2015년 시작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전 예방활동이다.

도내 주요 점검 대상은 취약시설, 최근 사고발생 시설, 도민 관심 분야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 1800여 개소와 주민신청제로 선정된 시설이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가 전국 기준



경남도 최만림 행정부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노후 위험시설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경남도

2020년 181건에서 2022년 263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키즈카페, 워터파크를 포함한 물놀이 시설도 전수 점검한다.

경남에서는 규모 1000㎡ 이상 실내 놀이제공 영업소 6개소와 워터파크 포함 물놀이 유원시설 2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및 안전취약 시설인 산사태 위험지역, 교량, 건설

공사장, 농어촌 민박·펜션과 출렁다리·집라인 등 신종 레저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경남도는 내실 있고 신뢰도 높은 점검을 위해 시설물 점검반 편성 시 토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키고,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열화상

카메라, 가스누출탐지기, 철근탐사기,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점검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 점검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과 행정안전부·경남도·시군 합동 표본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보수·보강, 전문기관 정밀안전진단 의뢰 등 안전조치하고, 점검 후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 특별교부세 신청 등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군에서는 가정,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도민들이 직접 본인 소유 주택이나 시설물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방송이나 반상회 등을 통해 안전의식, 안전전문가를 통한 신고 등을 홍보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담양군

신속집행평가 '최우수' 기관

담양군(군수 이병노)이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하반기 신속집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500만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전라남도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을 통해 6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2500만 원을 확보했다.

또한 군은 2022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각각 5270만 원, 3000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담양(전남)=양수영 기자

문경시

'주출산 케이블카' 기공식

문경시는 지난 20일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주출산 케이블카'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은 신현국 문경시장과 김학홍 경상북도행정부지사, 임이자 국회의원 및 지역의 시·도의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출산 케이블카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제4주차장 인근의 하부승강장에서 주출산 관봉 인근 해발 974.5m의 상부승강장까지 사도길이 1.86km, 10인승 곤돌라 38대가 초속 5m로 편도 7분의 속도로 운행하며, 시간당 최대 1500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다. /문경(경북)=장영우 기자 ycyw57@

AI 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전남·광주·전북, 사업비 426억 확보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 목표 2028년까지 지능형농업 실증 고도화

호남권 광역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융합형 농업 생태계 구축에 손을 잡았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융합 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공모사업에 광주, 전북과 함께 선정돼 총사업비 426억 원(국비 284억·지방비 142억)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수도권과 지역 간 AI 격차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초광역 협업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2028년까지 5년간 광주시, 전북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과 함께 지능형농업 실증과 고도화, 지능형농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기계스마트화(원격자율작업), 최

적 생육과 환경 관리(노지 정밀농업), 지능형 농업 데이터 수집과 제어(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고도화가 기대된다.

추진 사업은 ▲AI 자율작업 관제 체계 실증 ▲AI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구축 ▲AI 기술고도화와 사업화 지원 등이다.

특히 나주에 조성 중인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이미 구축된 노지 실증 테스트베드를 통해 ▲노지작물 생육에 최적화된 AI 솔루션 개발과 실증 ▲AI 융합 농업서비스 플랫폼 구축 ▲AI 솔루션의 기술고도화와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농산업과 AI융합을 통한 무인화, 지능화로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성장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농산업 혁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대구광역시는 4월 19일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와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IB 교육전문가 양성 지원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청, 경북대, 대구교대와 '맞손'

대구광역시는 지난 19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와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 IBO(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

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이다.

현재 전국 333개의 IB준비·운영학교 중 대구광역시에는 98개의 학교가 IB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이 중 24개 학교가 IB월드스쿨로 인증받았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IB교육을 선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최근 IB학교의 우수한 대학 입시 결과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창원시, '하노버 산업박람회' 공동관 운영

혁신기업 4개사와 참가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을 이끌 혁신 기업 4개사와 함께 현지 시각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독일에서 개최되는 'HANNOVER MESSE 2024'에 참가한다.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인터스트리 4.0의 요람이자 77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종합산업기술 박람회다.

올해는 지멘스, 리탈, SAP 등 63개국 약 4000여 개사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며 인터스트리 4.0과 제조업-X, 산업 에너지, 제조 디지털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탄소 중립, 수소 연료 전지 등의 최신 산업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지속 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되며 ▲연구기술 ▲공급부품 및 기술 ▲산업 자동화 및 동력전달제어기술 ▲에너지 솔루션 ▲산업디지털융합기술의 5개 주제관으로 구성된다.

창원특례시는 창원국가산단 미래 50년을 견인할 디지털전환(DX)분야 혁신 기업을 선정해 하노버 산업박람회 창원특례시 공동관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오알에스코리아 ▲메타뷰 ▲제이엔이웍스 ▲이플로우 4개사이다. 이번 창원특례시 공동관은 11관 B35 구역에 위치하며 참가 기업들은 창원특례시 공동관을 통해 신제품 홍보 및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목포유달유원지, 깨끗·쾌적하게 가꾼다

환경정화 활동·캠페인 전개

목포스카이워크 확장과 대반동 연안정비 등이 진행된 목포유달유원지 일대가 목포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 19일, 행락철 관광객 맞이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한 유달유원지를 알리고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유달유원지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 행사는 유달동주민자치위원회(회장 송수용)를 비롯한 유달동 주민과 원도심 상인회, (사)목포시관광협의회(회장 조길현), 유관기관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과 상인,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유달유원지를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관광 명소로 가꾸어 나가고자 해안가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 활동과 '친절·안전·정결·질서·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

유달유원지 내 목포스카이워크는 2년여의 디자인개선 및 확장공사 끝에 지난 3월 목포시민과 관광객에 개방됐으며, 스카이워크 아래 모래사장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연안정비사업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한국마사회

소니와 스포츠사진 촬영세미나

한국마사회는 오는 28일 랫트린파크 부산경남에서 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소니코리아와 함께하는 스포츠 사진 촬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촬영 세미나는 '누구나 쉽게 배우는 스포츠 사진'을 주제로 오전·오후 세션으로 진행된다.

소니코리아 공식 아카데미 강사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현수 사진작가가 촬영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